

1) 하루만에 폭염에서 폭설로 美 덴버 롤러코스터 탄 여름

입력 2020.09.09. 20:01 댓글 984 개

콜로라도주 덴버, 하루아침에 여름에서 겨울로 하루새 기온 30 도 뚝 떨어뜨려고 눈까지 내려



함박눈이 내리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 베일에서 8 일 메건 딜라드씨가 아이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고 있다. 베일=AP 연합뉴스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고 있는 콜로라도 이글베일에서 8 일 빨간 우산을 쓴 한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글베일=AP 연합뉴스

30 도가 웃도는 기온이 하루만에 영하로 떨어지며 눈까지 내리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 외곽에서 콜로라도 주방위군인들이 '캐메론 피크 산불'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콜로라도=로이터 연합뉴스

폭염과 산불, 쌍둥이 허리케인 등으로 재난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 여름이 하루아침에 겨울로 바뀌는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노동절 사흘 연휴 기간 동안 40 도가 웃도는 더위를 기록하던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7 일 밤부터였다.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 전선이 급격히 확장해 지난 70 여 일간 30 도가 웃돌던 더위를 하루 사이에 최저기온 영하 2.2 까지 떨어뜨렸다. 1872 년 1 월 하루 사이에 영상 7.7 도에서 영하 28.8 도로 내려간 이래 최대 기온차다.



덴버에는 2000 년 이후 20 년 만에 첫눈이 내렸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한랭전선으로 겨울 폭풍이 닥칠 것이며 당분간 폭설과 기록적인 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극단적인 기온 변화'는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가축 보호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20 도의 기온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콜로라도주 라포트 인근 리스트 캐년 도로와 라리머 카운티 로드 27E 교차로에서 7일 콜로라도 주방위군인들이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다. '캐머런 피크 화재'로 콜로라도 주 포트 콜린스 서쪽 지역 전역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 포트 콜린스=AP 연합뉴스



콜로라도주 민턴에서 8일 극단적 기온 변화로 인한 겨울폭풍으로 나무들이 쓰러져 있다. 민턴=AP 연합뉴스



극단적인 기온변화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 포트 콜린스 외곽에서 8일 콜로라도 주방위군인들이 '캐머런 피크 파이어' 산불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포트 콜린스=로이터 연합뉴스



8 일 극단적 기온변화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콜로라도주 조지타운에서
데이지 꽃에 하얀 눈이 덮여 있다. 조지타운=AP 연합뉴스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690

한국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단독]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비상연락망에 없는 장교에게 휴가 신청?"
- "이번 추석 어른들이 먼저 오지 말라 해주세요"
- 뿔난 카투사 출신들 "우상호, 위신 깎아내려... 사과하라"
-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결국 사망
- 윤영찬, 이낙연 경고 6 시간 만에 "카카오 호출 논란 질책 받겠다"
- 한강공원 '통제선' 뚫고 야간취식...도 넘는 시민들
- 정리해고에 줄줄이 폐업... 항공업계 코로나 실업자 쏟아진다
- [단독] 檢, 국군양주병원 등 압수수색...秋 아들 휴가 위법 확인 못해
- "억대 연봉 배달원? 그랬다간 사고 아니면 뺨어 죽어"
- 술 취해 벤츠 몰다 50 대 치킨 배달원 숨지게 한 30 대

댓글 984MY

로그인 해주세요.

- 추천댓글.
- 찬반순
- 최신순
- 과거순

건맨 2020.09.09.20:18

지구멸망의전조현상

답글 12 _323_9

O 좋은날 O 2020.09.09.20:15

지구의 경고다

답글 6 _501_5

vic viper 2020.09.09.20:17

하지만 미국은 기후협약 탈퇴.

답글 4 _367_5

lym9231 2020.09.09.20:20

대재앙이 온것 아닌가??

답글 13 _246_12

감사 합니다 ♡ 2020.09.09.20:16

자연이 많이 아프다

답글 2 _572_2

드렁큰메뚜기 2020.09.09.20:16

헐..무섭다..종말징조가 아니기를..

답글 4 _272_8

금강창파 2020.09.09.20:17

투모로우가 멀지 않았다

답글 9 _362_7

앨리스 2020.09.09.20:19

지구가 자정작용 중인게 맞다

답글 7 _265_10

lifeisshort 2020.09.09.20:18

이상기온,, 지금도 늦었는데.. 어찌하려고 ..아 무섭다..

답글 4 ~~301~~ ~~6~~

[조대현](#) 2020.09.09.20:17

여태 자연재해 기사중에 제일 오싹하다.

답글 7 ~~1405~~ ~~7~~

[김은정](#) 2020.09.09.20:17

이제 무섭게 느껴집니다.

답글 작성 ~~821~~ ~~5~~

[황예은](#) 2020.09.09.20:19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자연재해가 계속되던 와중에 여름에 눈까지 내리다니.. 2020 년은 지구가 나 아파요 하고 말하는 년도인걸까요. 우리 이번 년도를 출발점 삼아 지구를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합시다.

답글 18 ~~1769~~ ~~14~~

[가로수길](#) 2020.09.09.20:20

자연의 경고다

답글 4 ~~391~~ ~~4~~

[그늘](#) 2020.09.09.20:19

종말이 온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올거같다

답글 7